

■ 민선 5기 단체장에 듣는다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

“첨단산단, R&D 특구로 조성”

“지난 4년간 우리 북구는 열악한 구 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민선 5기에는 경제·문화·도시·복지 기반이 골고루 발전하는 선진 자치구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운암동 지역은 스포츠 메카로 급부상할 것”이라며 “낙후된 도심을 살리는 ‘일석이조’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무등산권 문화 등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현안이다. 북구는 무등산권·시화문화마을·중외공원 문화벨트를 연계한 관광 사업을 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연계한 인프라를 물론 지역 발전의 교두보로 삼겠다고 밝혔다.

호남고속도로 용봉 IC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조기 개설을 추진해 인근 지역 교통 혼잡을 개선할뿐 아니라 지역 발전의 교두보로 삼겠다”고 밝혔다.

주민과의 소통도 강조했다. 아주 작은 사업일지라도 주민을 직접 참여시키는 등 공청회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구는 주민 참여예산제·365 오피니언·동네 한 바퀴 주부 순찰단 등 각종 사업을 이끌어 오면서 전국 최고의 참여자치 도시로 성장했다.

송 광장은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구정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이다”며 “주민들에 의한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 사는 북구 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필 기자 glee@kwangju.co.kr

재임에 성공한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은 지난 민선 4기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와 복지를 기치로 한 구정 운영을 강조했다. 송 광장은 북구의 ‘경제 발전 축을 첨단과학산업단지’와 ‘본촌산업단지’로 나누어 발전 전략을 세웠다.

이 중 내년 초 2단계 공사가 완공되는 첨단과학산업단지는 광주

전통시장 활성화·각종 복지시설 등 유지 총력

무등산권 관광 개발·주민참여 공청회 제도화

R&D(광주 연구개발) 특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송 광장은 주민을 위한 각종 복지 시설 유지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펼치겠다고 했다. 민선 4기 당시 북구 노인 복지타운(4만명·270억 상당)을 비롯한 호남 유일의 장애인 재활 전문병원(150병상), 북구 아동복지단 사업(사업비 180억원 상당), 운암동 구립도서관, 동

림동 다목적 체육관 등을 유지했다.

노인·아동·장애인·학생·주민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복지 행정의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올해부터는 계속 사업(유치 사업)을 단계적으로 마무리 짓고 관련 사업을 계속 유지해 지역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아구타운 건립 방안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송 광장은 “현재 무등경기장 부지에 개방형 아구장이 들어서는 게 확실시되는 만큼 임

日 집권 민주당 참의원 선거 참패

44석 그쳐 과반 실패...연립 개편 불가피  
간 총리 책임론...권력투쟁 격화 가능성

일본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소비세(부가가치세) 역풍으로 11일 실시된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패해 과반 수 확보가 무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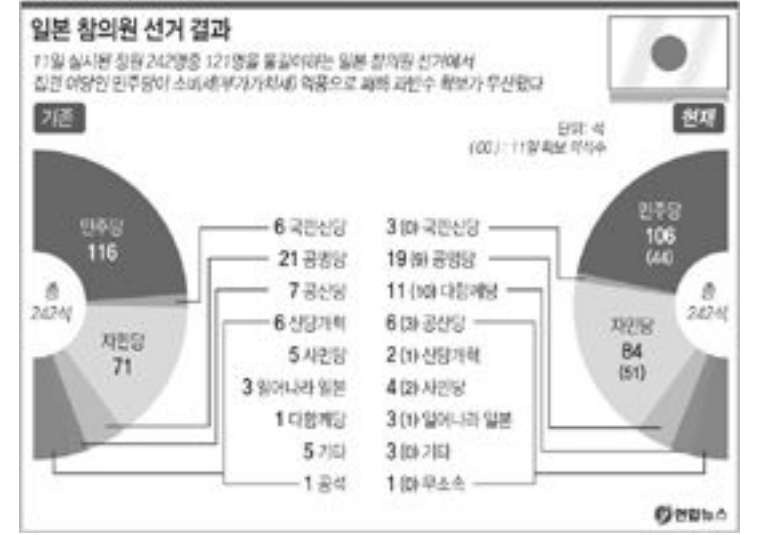
지난해 중의원 총선에서 대승해 자민당 54년 지배를 종식시킨 민주당 정권은 출범 10개월 만에 치러진 중간평가 성격의 참의원 선거에서 패함으로써 국정 운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참의원 정원 242석의 절반인 121석(지역구 73석, 비례대표 48석)을 몰고 이날 선거 개표 결과 민주당 44석, 자민당 51석, 다함계당 10석, 공명당 9석, 공산당 3석, 사민당 2석,

신당개혁, 일나라일본 각 1석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제1야당인 자민당에 참패하면서 단독 과반 확보에 필요한 60석은 물론,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목표로 제시한 ‘54석+α’를 확보하는데 실패해 참의원 의석이 선거 전 116석에서 106석으로 줄었다.

연립파트너인 국민신당은 단 한석도 확보하지 못해 참의원 의석이 6석에서 3석으로 줄었다. 연립여당은 무소속 1석을 합쳐도 참의원 의석이 과반(122석)에 크게 못 미치는 110석에 그치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각종 법안 처리에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고, 취임 한 달여를 맞은 간 총리도 지도력에 상처를 입었다. 소비세 인상을 쟁점화함으로써 지지를 추락을 불러 선거 패배를 자초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9월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 지도부와 당내 최대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전 간사장 그룹 간에 선거 패배 책임론을 둘러싸고 내분과 권력투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

러시아에서 12~16일

나로호 2차 공동조사위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의 2차 발사 실패와 관련한 한국·러시아 공동조사위원회(FRB)가 12~16일 러시아에서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우진)은 나로호 2차 발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 한·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2차 공동조사위원회가 오는 16일까지 모스크바 소재 흐루니체프사에서 개최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양측 전문가 각 13명으로 구성된 한·러 공동조사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해 그동안 양측에서 분석한 나로호 1, 2단 로켓부 비행시험 데이터 분석 내용을 교환하고 이에 따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제2차 FRB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발사 실패 원인규명 및 향후 발사 일정과 관련한 진전사항 등 회의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우진 원장은 “그간의 조사결과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지난 1차 발사에서조차 마찬가지로지만 원인규명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9부 2처 2청 35개 기관’ 세종시로

2014년까지 원안대로 완료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기존 12부4처2청 49개 기관에서 9부2처2청 35개 기관으로 조정된다.

이들 기관의 이전은 당초 예정된 2014년까지 완료되며,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 등 정부 고시 후 신설된 기관은 공청회 등을 통해 옮길지가 결정된다.

행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원래 목표대로 2014년

까지 세종시에 정부 기관을 이전하기로 하고 내달 중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내 단계적으로 부처 이전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5년 10월 12부4처2청 49개 기관을 옮기는 내용의 세종시 정부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으나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 정부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으나 부처가 18부4처18청에서 15부2처18청으로 줄고 일부 기관은 명칭이 변경돼 이전 기관이 조정됐다.

행안부는 기관이 통폐합됐으면 주

된 기관을 기준으로, 소속이 변경됐으면 주부 부처를 기준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전 기관 수는 줄었지만 그동안 공무원 수가 늘어 이동하는 공무원 수는 1만374명에서 1만440명으로 66명이 증가한다.

행안부는 세종시 정부 청사 공사도 서두를 계획이다. 청사 공사는 총 1~3단계 공사 중 총리실이 들어가는 1단계 1구역 공사에만 2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도의회 상임위장 선출 마쳐

시의회 운영위장은 16일 선출

광주시의회는 12일 제19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6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장에 김영남(43·민주·서구3)의원, 환경복지위원회장에 문상필(44·민·북구3)의원, 산업건설위원회장에 조영표(49·민주·남구1)의원, 교육위원회장에 정희근(58·북구)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행자위와 환복위·산건위원회장은 모두 단독 입후보에 선출됐으며, 정희근 교육위원장은 선거 결과 16표를 얻어 12표를 얻은 임동호(동·남구)의원을 제치고 선출됐다.

이날 선임된 상임위원장은 의장단에 이어 모두 초선위원이 선출됐다. 운영위원장은 오는 16일 선출한다.

전남도의회도 지난 9일 임시회에서 제 9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 이기범(53·민주·나주 1선거구) 의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Chilmanpyo (칠만표) waterproofing. It features a woman's face and text in Korean, including '대한민국 대표 방수제' and '칠만표 방수제'.

Advertisement for Lierac cosmetics. It features a woman's face and text in Korean, including '한불화장품 코랑스사업부에서 방문판매 대리점(지사장)을 모집합니다.' and 'LIERAC'.